

## 철도건설 사업비 2015년까지 11.3조원 부족

- SOC분야 철도투자 더욱 확대 필요 -

국가에서 추진중인 철도건설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기 위해서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철도건설 투자예산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건설사업 중 2015년 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경부, 호남(오송~광주), 수도권 등 고속철도 3개 사업과 성남~여주, 덕소~원주, 삼랑진~진주 등 일반철도 15개 사업, 수인선, 오리~수원 등 광역철도 4개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총 30.7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약 11.3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은 이용수요에 적절한 설계·시공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한편, 사업효과가 높은 주요사업 순으로 목표적인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나, 부족한 재원을 고려할 때 일부 사업은 그동안의 철도사업 사례에서 보듯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도건설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분	사업명	구간	총사업비(억 원)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대전, 대구도심	38,040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53,106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15,607
일반철도	덕소~원주 복선전철	덕소~원주	19,947
	영동선 철도이설	동백산~도계	5,368
	제천~쌍용 복선전철	제천~쌍용	3,814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삼랑진~진주	18,361
	부산~울산 복선전철	부산~울산	20,879
	진주~광양 복선화	진주~광양	10,607
	성남~여주 복선전철	성남~여주	18,830
	포항~삼척 철도건설	포항~삼척	28,474
	원주~제천 복선전철	원주~제천	11,401
	신탄리~철원 철도복원	신탄리~철원	472
광역철도	익산~대야 복선전철	익산~대야	5,143
	울산~포항 복선전철	울산~포항	23,431
	군장산단 인입철도	대야~군장국가산업단지	5,430
	공항철도연계시설확충	경의선~공항철도 연결	4,557
	철도종합시험선로구축	오송	2,218
	용산~문산 복선전철	용산~문산	16,782
	수원~인천 복선전철	수원~인천	10,937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왕십리~선릉	5,413
	오리~수원 복선전철	오리~수원	9,483

## 역매포실, 역무실 규모 축소화한다

- 철도건설 전분야 총 26종 설계기준 정비 완료 -

공단은 토목, 궤도, 건축, 시스템 등 철도건설사업 전분야에 대하여 설계기준, 공사전문시방서, 설계지침, 설계편람, 표준도 등 총 26종의 기준에 대해 제·개정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설계기준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철도역 50m 이내 버스승강장 설치 ▲교통카드·인터넷 예매를 감안 역매포실 및 역무실 면적기준 ▲철도구조물 내구수명 유지를 위한 관리기준 ▲터널 계측관리기준 및 대응체계 강화로 무재해 안전시공 기반조성 ▲터널 공동구 설치위치 조정으로 시공성 향상과 사업비 절감 ▲위성항법시스템 관측 신기술 도입으로 고품질 성과유도 ▲일반철도 구간 고속화(180km/h 이상)에 따른 신호현시 체계 주파수 확보 ▲스마트시대의 광대역·고속데이터전송에 적합한 광통신로 구축 ▲친환경 에너지설비 반영으로 21세기 녹색성장 선도 등을 담고 있다.

공단은 이번 설계기준 제·개정작업에 자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공단 인력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약 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 ■ 철도건설 설계기준 정비 현황(총 26종)

분야별	설계기준	전문시방서	설계지침	설계편람	표준도
노반	'11. 12	'11. 12	'11. 12	'11. 12	기 완료
궤도	-	'11. 12	기 완료	기 완료	기 완료
건축	'11. 12	기 완료	기 완료	기 완료	-
전철전력	'11. 05	기 완료	'11. 12	'11. 12	'11. 12
신호	'11. 05 (시스템편 통합)	기 완료	'11. 12	'11. 12	'11. 12
통신	'11. 05	기 완료	'11. 12	'11. 12	'11. 12

## PM 운영지침 전면 개정

-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

건설본부는 지난 12월 28일 '05년 11월 제정 이후 부분적으로 개정되어온 PM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 완료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운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PM 운영지침은 역할 중심으로 구성된 구 지침을 업무프로세스 중심으로 개정하여 사업진행단계별 업무 수행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관리자(PM)를 현 직제에 맞추어 부장급에서 처장급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업 착수부터 사업구성요소를 상세 WP(수행항목)로 분류하게 하였고, 기본계획 및 사업실시계획 변경, 총사업비 조정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일정관리와 IPS(종합계획공정표) 검토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각 사업별 사업관리시스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을 통한 책임 관리로 시스템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토록 하였다.

건설본부는 PM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총 20종에 달하는 사업관리절차서에 대하여 사업관리 참여자들이 꼭 필요한 업무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 정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본부 김한준 기자>



## 2012년 철도건설 안전 및 청렴결의

- 강원도 지역 7개 철도사업 재해 없이 추진기로 -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지난 3일 치악산에서 협력사·감리단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및 청렴결의대회'를 갖고, 덕소~원주복선전철사업 준공, 원주~강릉복선전철사업 착공 등 2012년 강원본부 소관 철도건설사업을 재해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다짐하였다.

본부는 올 한 해 5,498억원의 예산을 들여 덕소~원주, 원주~강릉사업 외에도 영동선이설, 원주~제천, 제천~도담, 제천~쌍용, 영주담 철도이설 등 모두 7개의 사업을 추진해 강원도를 비롯한 경기, 충북, 경북 일원의 철도교통 편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본부 김충섭 기자>



### 계시판

## 금주의 주요뉴스 (12. 26 ~ 12. 31)

- KTX 광주~목포 '저속철' 논란 재점화 (세계일보 12. 26)
- '철도건설 예산부족 사업 지연 불가피'(대전일보, 충청투데이, 금강일보, 동양일보 12. 26)
-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2016년 개통 (강원일보 12. 26)
- 원주~청량리 이동시간 45분 단축 (강원일보 12. 26)
- 철도운영권 내내 상반기 민간기업에 개방 추진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 12. 27)
- 분당선 연장 죽전~기흥 28일 개통 (한국경제, 매일경제, 국민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경기일보, 경기신문 12. 27)
- KTX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 관련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12. 28)
- 오피니언 - 호남저속철 (경향신문 12. 28)
- 경춘선 폐선로에 레일바이크 달린다 (서울신문 12. 28)
- 성남~원주 복선전철 원주까지 연장 (경기신문 12. 28)
- 철도공 선로보수 도급화 노사 대립 (경기신문 12. 28)
- 기자수첩-철도공단의 이상한 보상금액 (전남도민 12. 28)
- 코레일·철도시설공단 '내우외환' (충청투데이 12. 28)
- 철도시설공단 안나의집서 봉사 (강원일보 12. 28)
- 원주~강릉 복선전철 내년 5월 착공 확정 (강원일보 12. 28)
- 분당선 죽전~기흥 연장구간 개통 (국민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12. 29)
-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역 국비로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국제신문 12. 29)
- '광주-목포간 KTX는 신철선으로' (한국일보 12. 29)
- KTX, 호남간 가면 '저속철' (경향신문 12. 29)
- KTX노선 왜 팔아먹나? (한겨레신문 12. 29)
- KTX민영화, '경쟁도입'으로 포장된 '토건자본 특혜' (한겨레신문 12. 29)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건설 기준 개정 (파이낸셜뉴스 12. 29)
- 'KTX 기존선 활용은 短見' (광주매일신문 12. 29)
- 한국철도, 내팔 진출한다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충청투데이 12. 30)
- 원주~강릉 복선전철 내년 5월 착공 (조선일보 12. 30)
- 서울~부산 1시간대 고속철 (매일경제 12. 30)
- 철도시설공단, 5000만원규모 임직원 사량나눔 활동 전개 (금강일보 12. 30)
-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전북일보 12. 30)

### 경조사

- 강원본부 건설처 홍성진차장 병부상
- 수도권본부 시설운영처 김미희과장 부친상
- 발인 : 2011년 12월 29일
- 발인 : 2011년 12월 29일

## 영남본부, 건설현장 동절기 품질 및 안전점검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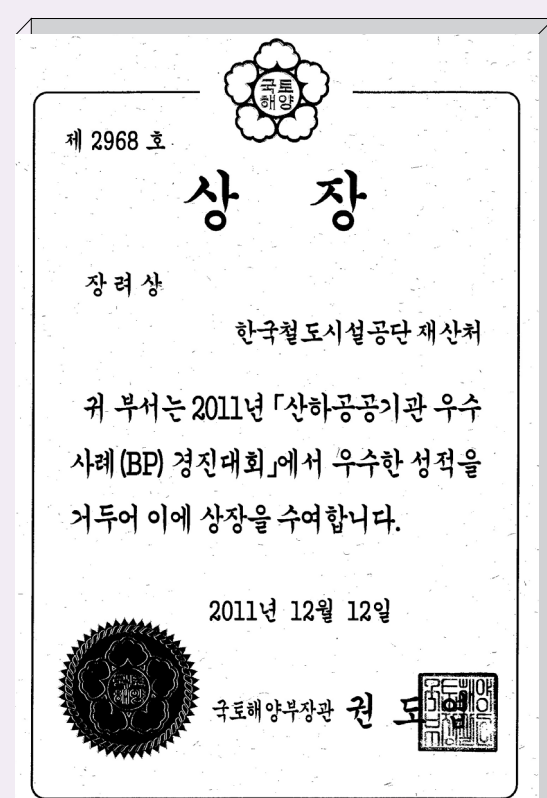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관내 건설현장을 방문, 동절기 품질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였다. 이태균 본부장은 부임 후 신경주역 고속분기기 및 선로전환기 야간작업현장, 대구도심 외 영남본부 6개 사업 전 현장을 짧은 기간동안 순시하면서 2011년 동절기 공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우수품질 및 안전사고 없는 무사고, 무재해 현장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이미 설계된 내용도 과잉설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용자중심의 역사설과 가시성, 배선 등 과잉설계가 없는 적정 규모인지를 검토, 확인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청렴과 신뢰로 공생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경전선 마산~진주간 2012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영남본부 김태원 기자>

## 「'11년도 BP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15개 공공기관에서 56건 제출 -



시설사업본부 재산처(처장 최중현)는 지난 12월 12일 국토해양부 주관 '2011년도 산하공공기관 우수사례(Best Practice) 경진대회'에서 「철도폐기물이 새로운 녹색자원으로 변신하다」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 1차 심사에서 통과하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15개)이 제출한 56건에서 3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BP는 기존 철도 개량공사 및 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철도폐기물(폐자갈 및 폐침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적기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을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폐기물 재생 일환으로 국가 수익 창출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는 내용이다.

실제 중앙선 팔당~양평 구간의 자건거 도로공사에 사업비 약 62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공단은 장항선 판교역, 서천역 등 14km를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고, 호남고속철도 13Km, 중앙선 3.8Km, 경부고속철도 26.4Km 등을 성토하는데 폐자갈을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총 88.6억원의 폐기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 지역 독거노인에게 연말 정나눔 실천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지난 12월27일 부산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과 함께하는 '2011년 연말 정나눔 행사'를 갖고, 14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는 등 정나눔 활동을 시행하였다.

부산시 중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과 함께 약 400여명의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가장 필요한 생필품과 복지관 식당에서 장기간 사용결과 노후되어 어르신들이 취급시 안전상 위험이 따르던 주방기구 등을 교체해 줌으로써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복지관이 2012년 흑룡의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영남본부는 다가오는 설명절 정나눔행사에도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단의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영남본부 김시환 기자>